

2018년 6월 15일

csf@kiep.go.kr

중국,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 연장 운영 발표



- 중국 정부는 6월 초 '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 심화 총체방안(深化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总体方案, 이하 '총체방안')을 발표하고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(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)를 7월 1일부터 2년 연장 운영할 것이라 발표
-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는 중국 정부가 서비스무역을 확대하고자 관련 제도·비즈니스 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정한 것으로, 2016년 2월 상하이(上海), 광저우(广州), 우한(武汉) 등 15개 지역이 시범지로 지정됨.'
- 각 시범지는 지난 2년 간 각 지역특성에 맞춰 육성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, 서비스무역 관리 시스템 개선, 통관원활화 등 시범정책을 발표·추진해 옴.
 - 중국 정부는 △ 서비스무역 관련 부처 간의 협조시스템 구축 △ 서비스무역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△ 연구개발용 제품의 수출입 통관 간소화 △ 크루즈관광·국제컨벤션 분야 수출 원활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으며, 시범지에서 추진된 주요 조치는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
- 각 시범지는 향후 2년 간 △ 서비스무역 관리시스템 개선 △ 서비스무역 대외개방 확대 △ 서비스무역 발전방식 혁신 △ 서비스무역 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

표 1.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에서 추진될 주요 정책 방향

구분	주요 내용
서비스무역 관리시스템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 부처 정책 협조·정보 공유 강화 - 서비스무역 발전 평가시스템 마련
서비스무역 대외개방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유무역시험구·베이징의 서비스무역 개방 경험을 참고해 금융·통신·관광·전문서비스 분야 대외개방 확대 - 신흥 서비스업 양방향 개방 확대 - 국경 간 결제·해외소비 등 분야 시장진입제도 개선·제한조치 완화

1 2016년 지정된 15개 시범지는 10개 성시(톈진, 상하이, 선전, 항저우, 쑤저우, 광저우, 우한, 청두, 웨이하이, 하이난)와 5개 국가급 신구(하얼빈신구, 장베이신구, 량장신구, 구이안신구, 시첸신구)임.

서비스무역 기업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에 서비스무역 진흥센터 설립, 업종별 협회 지원활동 강화 - 국제 서비스무역박람회 기능 강화,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
서비스무역 발전방식 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고물류·연구개발설계·검험검측·국제결제·전시·온라인대리판매(分销) 등 서비스무역 발전 - 서비스아웃소싱·기술무역·문화무역 등 신흥 서비스무역 주력 발전 - 서비스무역 디지털화
서비스무역 원활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시·유지보수·연구개발설계 관련 화물·물품 수출입 통관 간소화 - 비자 간소화 정책 개선·해외 전문인력 이동 원활화
서비스무역 지원정책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 서비스기업 소득세 부담 완화, 서비스무역 수출 면세 확대 - 서비스무역기업의 융자 채널 확대, 서비스무역 위안화 해외결제 확대

자료: 中国国务院(2018), 「深化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总体方案」.

□ 시범지에서 추진될 주요 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지난 2년과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, 베이징(北京)·송안신구(雄安新区)가 시범지로 추가 지정되고, 이전에 비해 서비스무역 대외개방 조치와 기업 지원정책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나타남.

- 베이징은 2015년 ‘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지’로 지정되어 서비스업 진입 규제 완화·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시범정책을 별도로 추진해왔으나, 향후 서비스업·서비스무역 관련 포괄적인 정책이 추진될 예정
- 시범지에서 향후 추진될 개방정책이 총체방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됨.
 - 주요 개방정책: △ (금융)외자은행 개업신고(开业申请) 시 위안화 업무 동시 신청 가능 △ (통신)해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자 서비스아웃소싱기업 콜센터 설립 시 지분제한 철폐 △ (관광)외국인의 중국 의료관광이 용이하도록 병원진료 목적의 별도 비자제도 마련 △ (관광)외국여행사·중국기업이 협력해 자가용·자가선박을 이용한 관광상품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△ (건설엔지니어링)외자 건설엔지니어링(工程设计) 기업이 최초로 자격면허 신청 시 실적 요구 요건 철폐 △ (법률)중국 본토와 홍콩·대만 법무사무소 간 협력 방식 확대
- 또한 첨단기술형 서비스무역기업에만 한정되었던 소득세 부담 완화 혜택을 서비스수출 기업으로 확대하고, 서비스무역 수출 시 면세해주는 지원정책이 추가됨.

표 2. 중국의 대외개방 관련 주요 시범지 비교

구분	해당지역	주요 목표 및 특징
자유무역 시험구	상하이, 광둥, 텐진, 푸젠, 저장, 랴오닝, 허난, 후베이, 충칭, 쓰촨, 산시의 일부 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서비스 효율성 확대, 상품무역 자유화, 서비스무역 편리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·무역 시스템 구축 -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도입, 제조업·서비스업 전 분야에서 대외개방 조치 선도적으로 시행
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지	베이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비스업 진입규제 완화, 관리·감독체계 개혁 - 문화·교육서비스, 금융서비스, 비즈니스·관광서비스 등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투자 개방조치 선도적으로 시행
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	베이징, 상하이, 텐진, 선전, 항저우, 쑤저우, 광저우, 우한, 청두, 웨이하이, 하이난, 송안신구, 하얼빈신구, 장베이신구, 량장신구, 구이안신구, 시첸신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비스무역 관리·감독 체계 개혁, 서비스무역 기업 지원 및 통관 간소화 등을 통해 서비스무역확대 방안 모색 - 외국인투자 개방조치도 시행하고 있으나, 주로 자국기업의 서비스수출 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이 많은 편

자료: KIEP(2015), 「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: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」등 자료를 참고해 저자 정리.

- 이번 시범지 정책에 개방정책이 강화된 것은 최근 중국 정부의 서비스분야 대외개방 확대 노선의 일환으로 보이며, 각 시범지에서 추진되는 개방정책을 살펴 중국 진출 기회 확대 모색 필요
 - 중국 정부는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시장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고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이라 공표하였으며, 자유무역시험구 등 제도를 활용해 서비스분야 개방 범위·개방 대상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.
 - 금융·건설엔지니어링 등 시범지에서 시행될 일부 개방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와 베이징(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지) 등지에서 먼저 추진된 것들로, 선행 지역들의 개방 후 변화 상황 파악 필요
 - 홍콩·마카오·대만으로 한정된 법률서비스 개방조치는 향후 한·중 FTA 서비스·투자 후속 협상 시 법률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 요구를 위해 참고 필요CSF

(작성자 : KIEP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박진희 전문연구원)